



서울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에서 9일까지 '禽飛 김왕현 조각초대전'을 여는 김왕현 조각가는 앞으로 추상 작업에 몰두할 예정이다.

“구상시대 갈무리...새로운 출발 의미 담았죠”

조각에 입문한 지 50여년. 작가는 여전히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었다. 인터뷰를 위해 작업실과 바로 연결된 가정집으로 들어섰을 때 눈에 띄는 건 커다란 책상에 놓인 수십장의 스케치였다. 최근 들어 추상작업에 좀 더 매진하고 있는 그는 시험대에 오르는 것처럼 자꾸 새로운 '시대'를 해보는 중이다.

김왕현 조각가가 서울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에서 '禽飛 김왕현 조각초대전' (9일까지)을 열고 있다. 2016년 동신대 조형예술학과에서 정년퇴임한 후 나주 산포면 작업실에서 작업에 몰두해 온 작가가 2013년 서울 세종호텔갤러리 전시 이후 8년만에 여는 개인전이다.

이번 전시는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작가로서의 한 시대를 갈무리하는 전시이자,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출발의 의미를 담은 전시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구상 작업'에 몰두해왔던 그는 이번 전시 후에는 '추상 작업'으로 좀 더 진입해 보여준다. 몇년 전부터 그룹전 등을 통해 비구상 작품을 1~2점씩 발표하며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온 그는.

전시작 12점은 모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내 고향 섬마을 이야기', '가족 나들이', '가족연주회' 등 정동으로 작업한 인물상은 홀로였다. 부부가 되고, 아이가 태어나 가족을 이룬다.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가는 연주자들의 모습도 보이고, 늙은 부모에게 다정한 눈빛을 보내는 자식들의 모습도 만난다.

김왕현 개인전, 서울 갤러리 라메르 '가족나들이' 등 대형조각 12점 전시 나주에 개인 미술관도 준비 중

그가 빛어내는 인체는 부분적으로 왜곡, 변형돼 있지만 전체적인 균형과 비례를 잃지 않아 안정감을 준다.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특 튀어나온 광대뼈, 가느다란 몸, 뾰족한 턱과 긴 목 등 김왕현의 인물상이 갖고 있는 시그니처는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 특히 그의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치마폭을 형상화시킨 듯한 역삼각형 형태의 평면적 구조다. 홀로 선 인물에도 등장하지만 여러 사람이 어우러진 군상에서 이 형상을 만날 때면 연대와 어울림을 떠올리게 된다.

작가는 "가까이는 가족, 넓게는 우리가 사는 사회 속 사람들의 결속을 의미하는 장치"라며 "시각적으로는 복잡한 상단부의 구성 요소를 간결하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신안군 비금도에서 태어난 김 작가는 목포고를 거쳐 조선대 미술대학, 동국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지금까지 서울 경인미술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광주 신세계갤러리 등에서 13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1997년~2000년에는 독일 베를린 로호 갤러리, 스페인 바르

셀로나·말베라 등 세계 곳곳에서 아트페어와 개인전 등을 통해 작품을 선보였다. 또 광주의 5·18 사적지 27 곳에 세워진 '5·18표지식', 아덴만여명 작전 전적비 해군작전사령부(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등 조형물 작업도 꾸준히 진행했다.

산포면 작업실에는 '김왕현미술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작업장의 의미가 더 크다. 자신의 모든 것이 담긴 조각 작품들을 '제대로 된' 공간에서 전시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던 그는 오래 전 구입해 두었던 나주 동신대 인근 부지에 소박한 미술관을 직접 지을 예정이다.

"조각 작업은 땅 속의 금을 찾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입니다. 조각가로서 나만의 형태를 찾아가는 과정은 힘들어도 또 그 만큼 의미있는 일이지요. 캄캄한 밤에 손전등 하나 들고 목적지를 찾아다니는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행복하듯, 계속 해 매는 듯 하다기도 어느 순간 내 세계를 찾았다는 기분이 들 때 그 희열은 무엇보다 바랄 수 없는 것이죠. 계속해왔던 구상작업을 지속하며 추상작업도 아우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처럼 전진난민한 마음과 눈으로 현실과 대상을 바라보고 표현해야 감동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죽을 때까지 잊지 않으려합니다."

그의 조각 인생이 다시 한번 '출발'을 맞는다. /글·사진·나주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류재용 작 '누릿재에서 본 월출산과 개신리'

영암의 역사·문화·예술...시간을 걷다

월출미술인회, 4~28일 광주문예회관

'영암의 속살을 들여다보다.'

1993년 모임을 꾸린 '월출미술인회' (회장 류재용)는 영암 출신 작가들로 구성된 그룹이다.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영암의 공간과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온 회원들은 영암의 역사, 문화, 예술, 자연환경 등을 주제로 매년 정기전을 개최하고 있다.

'월출미술인회'가 이번에는 광주문화예회관 갤러리에서 4일부터 28일까지 전시회를 갖는다. 문예회관이 지역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한 전시 공모에 선정돼 마련된 전시다.

'영암, 시간을 걷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작가들은 영암 마을 곳곳을 직접 탐방하고 그곳에서 느꼈던 각자의 느낌과 영감을 바탕으로 제작한 회화, 설치,

조각 등 작품 32점을 선보인다.

동화처럼 아기자기하게 묘사한 모정리의 아름다운 풍경과 옛 장터 삼거리의 조그마한 모습은 만날 수 있으며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으로 변신한 옥리 옹골도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에는 김진화·박일광·정선휘·문형선·정수미·백상옥·정현숙·박동신·송지윤·조병연·노여운·박문수·박인주 작가 등 모두 32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류재용 회장은 "이번 전시는 영암의 작은 마을의 모습과 삶의 흔적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시골의 푸근하고 소박한 풍경을 통해 삶의 여유로움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미은 기자 mekim@



우일선 선교사 사택에 흐르는 선율

건립 101주년... '순수' 6일 공연

근대역사문화마을 양림동을 거점으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소개해온 '순수'가 오는 6일 오후 7시 우일선 선교사 사택 앞에서 2021년 시즌 세 번째 공연을 진행한다. 광주시의 2021년 지역특화문화거점사업에 따라 올해 건립 101주년을 맞은 우일선 선교사 사택 앞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역사적인 건축물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랜드 오페라단과 발트 오케스트라가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영화음악과 오페라 아리아들

을 들려주며 가을의 정취를 전한다.

김사도의 지휘와 테너 송태왕, 소프라노 고희아의 목소리로 만나는 이번 공연에서는 헨델의 '파사칼리아', 엔리코 모리코네의 '라 칼리파' 등 총 9곡을 들려준다.

한편, '순수'는 지난 8년 동안 양림동 근대역사문화유적에서 '양림의 소리를 듣다' 공연으로 양림동 주민들과 광주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매 공연마다 장소와 인물에 얽힌 스토리를 소개해 문화, 역사 체험을 함께 제공해왔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나와 고래의 지구'

광주시립미술관 어린이갤러리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19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 중 하나가 지구 환경 오염 문제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기획한 어린이 생태 환경 전 '나와 고래의 지구' (2022년 6월26일까지)가 미술관 어린이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흥미로운 작품들은 어른들이 관람하기에도 손색이 없다.

이번 전시에는 국립생태원을 비롯해 김은경·문창환·임기준 등 지역 작가와 박신영·정재철·성실화랑 등 타 지역 작가(팀)가 함께 참여했다.

희귀동물 연구·보존에 힘쓰고 있는 국립생태원 동물복지부는 2017년 진행한 '바다거북 부검연구'에 관한 프로젝트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여수 한화 아쿠아플라넷에서 성장한 3살 아기 바다거북이 방류 11일만에 약 200개의 쓰레기를 먹고 폐사체로 발견된 상황을 기억하고 되돌아보는 기회이다.

평소 잡초의 생명력을 소재로 작업하고 있는 김원정 작가는 오염된 지구를 떠나 화성 탐사대가 된 잡초맨



어린이 생태 환경 전 '나와 고래의 지구'가 내년 6월26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어린이갤러리에서 열린다.

을 조각설치작품으로 구성된 'Life on Mars'를 선보이고 있으며 김은경 작가는 클레이 애니메이션,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을 통해 투박하지만 귀여운 모습의 돌멩이로 지구 온난화 이후 삶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준다.

문창환 작가는 지구의 온도가 현재와 같을 때 (0), 1도 상승했을 때, 2도 상승했을 때를 상상한 멀티미디어 영상 작품 '0,1,2'를 출품했다. 작품 속에서 빙하가 녹아내려 물에 잠기는 건물은 광주시립미술관이다.

박신영 작가는 민들레, 엉겅퀴 등 들꽃들을 세부적

으로 묘사한 18개의 '식물 세밀화' 작업을 선보이며 디자인 브랜드 성실화랑은 2011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멸종위기동물 그래픽 아카이브'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또 임기준 작가는 한반도에만 서식했다가 멸종한 '귀신고래'의 모습을 통해 인간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동물 멸종의 문제를 들여다본 평면회화 작품을 전시 중이다.

전시장 중앙에 설치된 정재철 작가의 '블루오션 프로젝트-크라켄 부분'은 제주도과 신안 앞바다 등에서 수집한 쓰레기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40년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